전국 최초 '건강 관리 스마트워치' 보급 '눈길'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치매,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지역 어르신의 노후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스마트워치(Smart watch)'를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매안심마을에 거주하는 홀몸 또는 75세이상 노인, 경증치매환자 10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 실시간 생체 및 심리수치 측정·분석에 따른 건강 돌봄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워치는 실시간 위치정보 조회를 비롯해 산소포화도, 심박 이상, 활동량(걸음 수), 낙상·기절 등 어르신의 생체 건강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돌봄 기기다.

대상 어르신의 월별 건강지수를 파악해 건강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계와 연결된 스마트폰 앱(App) 활용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로 우울·불안·스트레스·회복탄력성 등 심리수치 데이터 분석 및 긴급상황에 대응한 맞춤형 정신건강 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워치는 '나주형 스마트 건강지킴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양대학교 생존신호정보연구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시계를 통해 취득한 위치정보 활용, 치매 어르신 사고방지, 고독사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기기 사용자와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수립됐다.

나주시가 전국 최초 치매안심마을을 거주 노인 10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했다. 나주시 제공

치매안심마을 노인 100명에 위치 정보 등 건강 신호 측정
치매·우울증·고독사 등 예방
윤 시장 "맞춤형 돌봄서비스"

나주시와 한양대, KISA 등 3개 기관은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건강 안전망을 위한 생체·심리 연계 웰니스(신체·정신건강 종합지수) 케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3차례에 걸친 연구·실증을 진행해왔다.

나주시는 실증성과에 힘입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나주시 시정연구모임인 '뜻세움' 발표회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SMART AIP(지역사회 계속 거주) 체계 조성사업을 제안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이뤄냈다.

생체 건강 신호 측정 가능한 스마트 워치(오른쪽)와 관련 앱(App).

나주시는 소방서, 경찰서, 나주 지역 병원과 연계, 어르신의 실시간 신체·정신건강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응급 상황 출동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국 최초 스마트워치 기반 생존신호정보 기술 발전을 통해 나주 지역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마을과 집에서 노후 일상,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주시만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적합'
나주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나주시가 지난 8월 이뤄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전남도와 함께 유통·판매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9월과 11월 관내 마트 등에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 6개 항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9월은 참돔·꽃게·광어를, 11월엔 굴·대구·숭어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수산물 판매 영업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주 도내 지자체 2곳의 수산물(3건)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이다.

올해 현재까지 도내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 수산물 총 488건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판매 영업주들은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세미나 중심지 '각광'

숙박료 저렴·편의 시설 갖춰
호수 공원 관광지 등 인기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호텔들이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이용객 증가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6일 나주시와 숙박업계에 따르면 연말 연시를 앞두고 숙박은 물론, 각종 워크숍, 송년회 개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호텔의 경우 최근 전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 세미나가 열렸으며 B 호텔은 전남교육연수원이, C 호텔은 한전KDN 등이 이용했다.

빛가람동 내 호텔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핵심 요인은 고급 호텔에 비해 숙박료는 크게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편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점이 손꼽힌다.

혁신도시 내 한 호텔의 경우 일일 숙박비가 6만원대임에도 비즈니스 컴퓨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호텔 내부에는 세미나실을 비롯해 정원, 테라스, 넓은 휴게 공간이 마련돼있다.

객실마다 세탁기, 스타일러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1박 이상 세미나 장소에 최적화돼있다는 평이다.

다른 호텔들도 한국관광품질인증부터 안마 의자·스타일러와 같은 편의성, 통유리창으로 조망할 수 있는 호수공원 뷰, 넓고 쾌적한 실내, 사계절 미온수가 나오는 수영장까지 각자의 장점을 어필하며 손님맞이에 나서고 있다.

빛가람동 호텔 주변 관광요소들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호텔과 바로 인접한 호수공원에는 혁신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빛가람 전망대와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이 잘 닦여있으며 현지 로컬 맛집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즐비하다.

나주관광의 랜드마크겪인 산포면 메타세쿼이아 거리와 금성관·목사내아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자동차로 10분이면 만나볼 수 있다.

이봉석 빛가람동 상가번영회 회장은 "빛가람동 호텔들이 안락함과 청결은 물론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나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나주 혁신도시가 향후 관광·마이스(MICE)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 혁신도시=김용의 기자

나주 다도면 후원물품 기탁
한전kps 인재개발원

한전kps 인재개발원은 최근 나주 다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나상대 다도면장에게 이웃돕기 성금 150만원과 지역 농산물로 구성된 126만원 상당 후원물품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기탁된 물품은 다도은 사회적 취약계층 10가구에 후원금, 20가구엔 후원 물품을 각각 배분해 전달됐다.

지용대 한전kps 인재개발원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소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임직원들과 한 마음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상대 나주시 다도면장은 "주민의 일상 안전과 편의를 위해 꾸준한 나눔과 봉사를 지속해 온 한전kps 인재개발원 임직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kps 인재개발원은 나주 다도면에 있으며 앞서 지난달 다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겨울철 전기 요인으로 인한 주택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다도면 15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과 노후 전기시설물을 교체해주기도 했다.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 지역 학생들, 美 링컨·카네기홀 무대 오른다

금천중·빛가람초·중생 4명 구성
바이올린 앙상블 '카이로스' 팀

나주 금천중·빛가람초·빛가람중학교 학생들이 미국 링컨홀·카네기홀 무대에 오른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금천중 문명경·김가윤, 빛가람초 최무성, 빛가람중 장재명 등 4명 학생으로 구성된 바이올린 앙상블 '카이로스'팀이 오는 오는 16일 미국 뉴욕 링컨홀, 19일 카네기홀에서 바이올린 공연을 한다.

카이로스팀은 지난 3월 뉴욕일보사가 세계 청소년을 상대로 진행한 오디션에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1악장' 연주곡을 올렸다.

바이올린만으로 악기를 구성해 완벽한 연주모습을 선보였으며 심사를 통해 현악 앙상블 부문 3등을 차지해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카이로스팀은 링컨홀·카네기홀 무대에서도 오디션에 참여했던 연주곡과 앵콜곡을 선보이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다.

카이로스팀의 만남은 빛가람초가 '방과후 학교' 활동을 위해 구성한 드림오케스트라를 통해 이뤄졌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며 바이올린에 재능을 보인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에서도 악기를 놓지 않았으며 지난 2021년 카이로스팀을 결성하고 연주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카이로스팀은 나주 이화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 나주 청소년예술제 초청연주, 한국스즈키협회 여름음악제 오프닝콘서트 등을 펼쳤다.

금천중·빛가람초·중 4명 학생으로 구성된 바이올린 앙상블 '카이로스'팀이 미국 뉴욕 링컨홀,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한다. 왼쪽부터 김가윤(금천중), 최무성(빛가람초), 장재명(빛가람중), 문명경(금천중). 전남도교육청 제공

금천중 최광표 교장은 "준비한 곡을 열심히 연주해 많은 박수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박송엽 기자